



## [ 경제 ]

재테크 기본은 절약이다

병의원·변호사·한의원 등

'호황 업종' 세금 오른다

개그맨 김생민씨의 10억 모으기 화제다. 연예인들이 쉽게 돈을 버는 CF나 행사없이 오로지 방송출연료만으로 자수성가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눈에 띠는 것은 투자를 해 고수익을 올렸다가 보다는 10년간 양복 3벌로 지내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귀걸질약을 기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 결과 무일푼에서 10억을 모았다는 점이다.

아끼고 절약한다는 것은 소비에 대한 욕구를 억제해야하는 인내력을 요구한다. 이런 인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까지 아껴가면서 구차하게 살아야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 '보이지 않는 빛' 카드 금지 말고 현금써라

### 지출항목 정확히 파악 의미없는 지출 방지 월 예산 세우고 돈 쓴곳 하나하나 기입하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필자만 본 부자들은 대부분 검소하다는 사실이다. 결코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즉, 부자여서 검소한 것이 아니라 검소했기 때문이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결코 구차한 것이 아니라 10년 뒤 더 나은 재정적인 미래를 위해 갖춰야 할 기본자세이다. 그래도 구차한 것이 싫다면, 적어도 의미 없이 지출되는 부분을 과감히 조정해서 지출여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수익률을 높이더라도 아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방법에 대해 먼저 고민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투자에 대한 잉여자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8% 수익률로 1년간 저축을 했다면 1천245만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생활비를 5만원 아끼며 매월 105만원 수익률이 낮은 4.5% 은행 정기적금에 1년간 저축한다면 1천28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무리 수익률을 높이더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투자 잉여자금을 늘리는 것이 자산 형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위해서는 먼저 가계부를 쓰고, 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무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소득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지출되는 항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가계부를 작성해 지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월 초 각 항목별 지출 계획을 세운다면 의미 없이 지출되는 외식비, 통신비 등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 되는 소비재 구입은 신중해야 한다. 열심히 저축해서 목돈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남자들은 자동차가 나이 보이고 여자들은 냉장고와 세탁기가 나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감가상각 되는 소비

재는 1년만 지나면 가치가 30% 이상 떨어진다.

특히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젊은층은 차량을 구입하느냐, BMW(Bus·버스, Metro·지하철, Walking·걷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매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쓰기보다는 현금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채이며, 거래하는 돈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쓴돈이 커져 지출을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주 1회 지출액을 예상해 현금으로 인출 후 이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지출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 팀장〉

### 2050년 1인당 소득 9만달러

## 한국, 세계 2위 부자국 된다

### 골드만삭스 보고서

한국이 포함된 'N-11'(Next Eleven)은 투자자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1인당 소득은 2050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자리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9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1인당 소득이 6만5천달러를 뛰어 넘는 부자 클럽(The rich club)에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와 브릭스의 러시아, N-11의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9만294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9만1천683달러에 조금 뒤처질 뿐 영국(8만234달러), 러시아

(7만8천576달러), 캐나다(7만6천2달러), 프랑스(7만5천253달러), 독일(6만8천253달러), 일본(6만6천846달러) 등 G7 국가와 일본을 모두 앞서는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2005년 말 'N-11' 개념을 처음 소개하면서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을 제외하고 현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론'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당시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8만1천462달러로 미국의 8만9천663달러와 5천달러 가량의 차이가 났지만, 이번 업데이트 자료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줄어들었다. 2025년과 비교해도 한국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연합뉴스〉



라오스 부총리 순천 바이오디젤 업체 방문

라오스의 송사와 랭사와 부총리와 라오스 최대 민간기업인 코라오 그룹 일행이 지난 28일 순천 비엔디 에너지(대표 유병재)를 찾아 생산시설과 기술현황 등을 살펴봤다. 바이오디젤(식물성 경유)을 생산,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비엔디 에너지는 지난해 코라오 그룹과 바이오디젤 원료인 자트로파 경작지를 확보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 농협 경제·신용 분리

### 2017년부터 중앙회는 조합지원·농정 활동만 맡아

농협중앙회가 오는 2017년 판매·유통을 책임지는 경제와 은행·카드 등의 신용, 조합지원과 농정활동을 맡는 중앙회 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농협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농협 신·경분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내 3대 사업영역인 경제, 신용, 교육·지원부문이 3개 독립법인으로 나뉘어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4조 6천198억원 ▲신용 9조7천억원 ▲교육·지원 3조2천64억원 등 총 17조5천262억원 수준의 자본이 확보돼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말

현재 농협의 총 자본금이 9조2천 773억원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8조2천489억원이다.

정부는 농협이 신용부문의 국제 결제은행(BIS) 자격기준을 혼수준인 11.8%와 비슷한 12%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본금을 평균 8천250억원 정도로 추산, 8조2천489억원을 모두 축적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국세청은 특히 상당수 유명 연예인들이 기획사 소속 매니저를 개인 매니저로 위장해 쓰는 편법으로 거액을 탈세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 부풀리기'에도 개입한 혐의를 짚고 징종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조세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국내법인 담당 조사 국은 이달 초부터 국내 대형연예기획사

## 유명 연예인·연예기획사 세무조사

### 국세청 기획사 3~4곳 등 탈세혐의 포착

국세청이 '기획형' 유명 연예인과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고액 탈세 혐의를 일부 포착,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상당수 유명 연예인들이 기획사 소속 매니저를 개인 매니저로 위장해 쓰는 편법으로 거액을 탈세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 부풀리기'에도 개입한 혐의를 짚고 징종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를 대형기획사와 대형연예기획사로 분석해, 그에 맞는 대처방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현 법규를 어기고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상급 연예인 중 상당수는 외형상 특정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꾸며, 실제 활동내역과 수입 등을 숨기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은 실제로 기획사를 통해 각종 방송·광고 출연 수입을 내고도 기획사와 연예인 모두 직접적인 고용·소득 관계가 아닌 것처럼 속여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9월이후 민간주택 4채중 3채 청약가점제

## 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9월 이후 분양되는 민간 중소형 아파트의 4채 중 3채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가 가려지게 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진다.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입찰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절반씩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에서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이날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교부는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 시안은 분양과 상한제 실시 등으로 인해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주택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 및 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재)현대산업정보연구원 | 건설현장 공무/직산 경력자 채용              | 초대졸/경력1년 | 회사내규      | 03/31 | 062-513-0906 |
| 승애디자인        | 편집 및 시나리디자인 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1200~1400 | 03/31 | 062-525-7955 |
| 광주공과대학       | 정규직 어사무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000~1200 | 03/31 | 062-369-0790 |
| (주)선성플러스     | 구내식당 관리총무 사원모집                 | 고졸/경력무관  | 1800~2000 | 04/03 | 02-431-4981  |
| 한양중합검사(주)    | 정규직 검사직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4/03 | 062-369-0790 |
| 금호생명         | 〔금호생명〕 손수 비어운드 상담직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4/05 | 02-518-3250  |
| 뉴비아이오(주)     | 생산/제작/자재 관리 신규인력 모집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4/05 | 062-973-6995 |
| AIG손해보험      | AIG손해보험 본사 CSR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2600~2800 | 04/06 | 02-750-5157  |
|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 광양민관 U-T 연구소 RFID/USN 전임연구원 모집 | 대출/경력무관  | 회사내규      | 04/06 | 061-750-6452 |
| 샘표아이에스피      | 샘표식품 광주지점 판촉사원 관리팀장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4/06 | 02-2267-7871 |
| (주)동희하이테크    | 사내 인전관리자 채용                    | 초대졸/경력무관 | 1800~2000 | 04/07 | 062-949-8321 |
| 에너스건설(주)     | 재무부 부서장급 직원모집                  | 대출/경력5년  | 회사내규      | 04/07 | 062-572-5500 |
| (주)새미건설      | 사무관리/경리/회계 어사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000~1200 | 04/07 | 062-385-0357 |
| (주)동화씨제이씨    | 철근기공장 근로자 채용공고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4/07 | 062-953-9955 |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